

남-북 문화재 교류 대비 '불교의 힘' 키우자

문헌연구 선결과제...사지복원 능력 강화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계 스스로 남·북 불교문화재 교류의 대계(大計)를 세우는 한편 제2, 제3의 신계사 복원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계 문화재 전문가들은 "신계사 복원과 별도로 폐사지 조사·복원 등 불교문화재 교류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중단이 중심이 돼 교류를 진행하되 문화재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일고 있는 까닭은 신계사 복원 계획이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계가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고계의 여건으로는 향후 계속될 수 있는 북측 주요 사지의 공동 발굴·복원·보존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문헌으로 확인된 북한의 사찰 수는

500여 개. 이 가운데 현존하는 사찰 수는 겨우 60여 개에 불과하다. 즉, 예전의 사찰 대부분이 폐사지로 남아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지 조사와 문헌 자료를 종합·비교하는 학술적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긴 안목으로 발굴 및 복원에 착수해야 한다.

금강산 신계사의 경우, 고계는 90년대 초부터 복원에 뜻을 품어 왔지만, 현재 '참여한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74년 신계사지를 발굴한 북측이 중창기(1597년)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측설계 도면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복원 자체보다는 제반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원칙이 앞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고계의 역량으로는 신계사 복원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며 "복원이 결정되면 중단에서 특별 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중단 한 관계자의 말은, 남·북간 불교문화재 교류에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임하는



◀남·북 공동 사지복원의 시원이 될 신계사지 모습. 74년 이곳을 발굴한 북한은 '1597년(중창기)'의 사적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고계는 북한 불교 관련 문헌조사를 토대로 이룩한 1차 성과물을 적극 활용해 불교문화재 교류의 대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55년의 분단기간 변형된 서로의 모습을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고계의 '북한불교 관심'은 <북한불교연구>(법타스님), <북한사찰연구>(사찰문화연구원)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김정배) <한국의 사찰-북한의 사찰>(일지사 편집부), <북한문화재도록>(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의 성과물을 낳았다. 특히 조계종은 올 11월경 <북한문화재(가칭)>를 발간함으로써, '북한불교'에 대한 문헌조사를 일단락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가들은 "10여 년간의 문헌 조사를 토대로 북측 폐사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현장 사진과 상세한 문헌 자료를 더 찾아야 한다. 또 사지의 중요도를 구분, 복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동발굴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구성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종욱·권형진 기자 (gobaou@buddhapia.com)

영변스님 '화엄경론' 발견

윤선대박사, 서울대 규장각서 100권중 필사본 6권 초기화엄사상 연구자로



◀윤선대 박사

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은 송광사 소장본을 저본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도 타이준(일본) 박사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영변(643~712·중국) 스님의 <화엄경론> 필사본 6권(1책·규27780)을 발견했다.

영변 스님은 중국 북위시대의 대표적 화엄학자. 전 100권으로 구성된 그의 경론은 <60화엄>의 일차 일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체의 문맥을 유연하게 규명해, 법장(643~712·중국)·진관(738~839·중국) 스님들이 자주 인용할 만큼 당대 최고의 <화엄경> 해설서로 꼽혔다.

경론은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까지 유통되었지만 모두 사라지고, 1944년까지 6권만이 송광사 장경각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전쟁으로 소실돼, 현재 전권 중에서 권3·10·14·16·17·18 등 6권만이 일본에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은 권51~권56을 묶은 1책에 불과하지만, 일본에 현존하는 경론과 함께 지론종(地論宗) 계열에서 출발하는 초기 화엄사상과 교학의 전개 과정

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은 송광사 소장본을 저본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도 타이준(일본) 박사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영변(643~712·중국) 스님의 <화엄경론> 판식(板式)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규장각의 필사본 판식이 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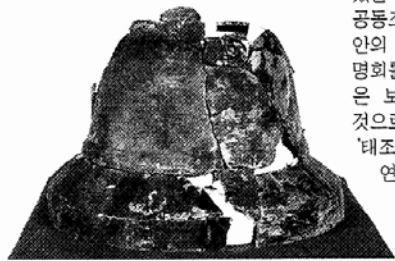
필사본의 각 판은 1행에 20자씩 총 30행으로 되어 있고, 각 판의 왼쪽 아래에는 '화엄론오십일'이라는 권 수와 장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윤 박사는 "충북부나 경상제국대에서 송광사에서 발견된 경론을 필사·보관했고, 이 필사본이 서울대 규장각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 같다"고 풀이하고, "송광사 소장본은 조선시대 장경도감에서 펴낸 <화엄경론>의 일부로 추정할 수 있다" 설명했다.

<화엄경론>의 주 텍스트인 <60화엄>은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불타발타라가 418~420년에 한역했다. 이에 대한 주석서로는 <화엄경론>을 비롯해 법장의 <탐현기>, 지엄의 <수현기> 등이 유명하다.

오종욱 기자

회암사지 '유물보고'



◀사찰명이 새겨진 청동금탁.

청동금탁·분청향완·석재불상 발굴

조선초 왕실의 지원을 받아 번성했던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 최상급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됐다.

1월말부터 회암사지를 발굴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문화재단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 29일 그동안의 발굴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보광전 추녀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금탁 2점에서 '태조 3년 6월(1394)'이라는 제작 연대와 함께 '천보산중회암사...'라고 기록된 명문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회암사'라는 사찰명이 새겨진 유물이 발견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청동금탁에는 또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의 이름이 순서대로 새겨져 있어 회암사와 조선왕실의 관계를 알려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 2차 발굴조사에서 보광전 등 모두 15개소의 건물지가 발견돼, 조선왕실의 지원을 받아 사역 내 건물이 262칸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던 국찰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건물지는 안벽에 가까운 형태로 발굴돼 조선초 사찰건축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선 초기 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 석재불상과 토제 등 최상급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학연구회 워크숍

불교학연구회는 8·9일 경기 남양주 불암사에서 '현대사회의 제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응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불교의 환경문제'(신규탁), '생태철학과 불교'(김종욱), '불교의 생명사상'(이종표), '장신치료와 불교'(김명숙), '불교의 신앙'(종범스님), '불교와 매스컴'(신진옥), '가상현실과 불교의 세계관'(이효걸)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02)2260-3128

학술단신

한국선학회 7월 발표회

한국선학회는 15·16일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수행법을 비교하고 직접 배우는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홍명(지리산 토굴수행) 법사의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의 연관성', 황미향(동국대 강사) 박사의 '남방선의 수행법' 등이 발표되며, 해거·거해 스님과 강건기·김연걸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이번 발표회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선 실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비 3만원. (02)2260-3135

교불련 선종학술대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불교춘추사는 8월 11일 강서성 남창시 우민사에서 '강서 선종과 한국선의 이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조선이 한국선종에 미친 영향'(일성·중국 진여선사 방장), '강서 선종과 구산선문의 원류'(이준·교불련 회장), 등 논문 9편이 발표된다. (02)720-6618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선불교 7계

선불교 미국·유럽 전파 '한몫'

선불교 7계(The Seventh World of Chan Buddhism)는 남노소를 망라한 사부대중이 함께 선불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불심 공동체다. 협회의 본부는 미국에 있으며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지회를 두고 있다. 선불교의 사상을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참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교사회운동 NGO인 셈이다.

중국 선불교의 범용을 이어 받은 과거 중국 만주 지역 출신인 추안 유안(Chuan Yuan) 스님이 1962년 미국에서 설립한 단체로, 현재 다수의 불교사찰과 참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추안 유안 스님이 미국에서 거의 30여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거의 30년 동안 선불교 경전과 사상에 대한 강연을 포교와 수행을 해온 결실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님이 그동안 펴낸 선불교 관련 해설서 100여 권에 대한 리뷰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책들은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 6개 국어로 번역될 정도로, 서양인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미국불교협회(SinoAmerica Buddhist Association)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참여와 활동이 미국인들에게 선불교를 소개하는 좋은 창구



가 되고 있다.

선불교 7계에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찰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불교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소속 회원들은 모두 오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협회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인 3년 과정의 승가교육과 2년 과정의 평신도 교육은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3년 과정의 승가교육은 승려가 되기 위해 전문적인 승려 품계 절차에 따라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특히 회원들의 수행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선택할 있도록 대승불교 계열의 다섯 가지 불교 종파들의 수행 가풍을 권장해, 참선 수행만을 고집하지 않는 여유도 보인다. 이들 종파에는 불교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율종, 참선수행에 매진하는 선종, 불교교리를 연구하는 교종, 수문과 기도에 주력하는 밀교, 염불을 열심히 하는 정토종 등이 있다.

선불교 7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는 불교경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산하 기구인 불교전번역협회(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에서 도맡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100여권의 불교경전을 영어, 불어로 번역 발행하였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http://www.hsuyun.org/Dharma/nanhua/7thworld/index.html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1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왕토마을에서는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금해스님의 여 레 신 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난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금 만큼 값진 죽염 쥐논이 콩간장 콩매주를 발효시켜 한방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드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지수정 죽염을 넣고 지수정 죽염 1 : 쥐논이 콩 간장 5 : 느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간장 바르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일에 결정적 영향, 소화가 장질환에 급속 해결

▶ 숙취 해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논이 콩 매주 1kg 당 : 15,000원
- 쥐논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분자님을 모집합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연전문가

상담문의 0523)372-1221 / 011)564-1217

- 입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 예금주 : 지덕용
-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2000학년도 제9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교육 계절강좌 수강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불교 교리공부와 법사교육에 대방심과 큰 뜻을 두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수강신청 등록을 못하신 분자님을 위해 특별히 8월 하계절을 이용하여 전반기 법사교육에 관한 계절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전반기 법사교육 일정에 준하여 법사행도에 절차탁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편입 및 계절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하오니 불교교육과 접수정법하는 법사의 행로에 관심있으신 분은 금반 법사교육 계절강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 모집안내

출강 및 통선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7월 20일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법사종연학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1번지 (전지빌딩 3층)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